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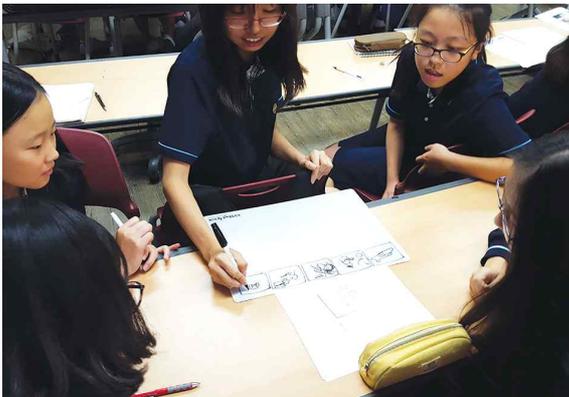
자유학기제 현장 돌보기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오후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개설되는 만큼 형태도 다양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숨겨진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경기 매송중 ‘Extensive Reading & Visual Storytelling’

“독서로 쌓은 영어 실력, 친구와 함께 나눠요”



UCC 촬영 전 촬영할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매송중 학생들. 매송중 제공



매송중 학생들이 비주얼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 만든 영어 명언. 매송중 제공

경기 매송중의 자유학기 활동 중 주제선택 프로그램인 ‘Extensive Reading & Visual Storytelling’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영어책을 읽고 친구들과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영어 읽기·말하기 실력을 기른다.

이 수업을 기획한 노수진 영어 교사는 비판적으로 독서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독서의 가치를 알리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을 높였다. 노 교사의 수업은 '2017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자유학기활동 부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주제선택 프로그램인 이 수업은 블록타임으로 묶인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6, 7교시에 총 34차시로 진행됐다. 이 수업은 △영어 독서의 가치 알아보기(2차시) △영어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UCC 제작(8차시) △독서 전략 습득 및 비판적 독서(5차시) △스토리텔링 법칙을 활용한 이야기 구성(5차시) △책 'The Magic Finger' 읽고 발표(6차시) △독서 활동에 대한 영어 명언 만들기(3차시) △영어 독서 재능 나눔 활동(5차시)으로 이루어졌다.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독서의 가치 배우고 알려요

1~2차시에는 영어독서의 가치를 알아본다. 매송중 학생들은 입학 후 학교가 제공하는 온라인 영어독서프로그램 및 각종 영어책과 영어사전을 구비해두고 상시 개방하는 영어교과교실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독서를 접한다. 이런 독서경험에서 배운 영어독서의 가치에 대해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나아가 가장 재밌게 읽은 책을 비주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소개한다. 비주얼 스토리텔링(Visual Storytelling)이란 시각을 뜻하는 'Visual'과 이야기하기를 뜻하는 'Storytelling'의 합성어로 시각적 자료를 이용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이야기 방법을 뜻한다. '집이 태풍에 날아갔다'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면 집과 태풍 그림을 활용해 듣는 이의 이해를 돕는 식. 노수진 교사는 "비주얼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면 영어 표현 능력과 듣기 능력이 다소 부족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친구들의 의견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3~10차시는 영어독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손수제작물(UCC)을 제작하는 시간. 먼저 다양한 UCC를 보며 시청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비주얼 스토리텔링 방법에 대해 모듈별로 토론하고, 촬영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본 뒤 이를 토대로 영상 촬영과 편집을 한다. 학생들은 '영상'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업에 흥미를 갖게 되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덜어낸다.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방법 고민하며 창의력 '쑥'

11~15차시는 독서 전략을 배우고 실습해보는 시간. 가장 자주 사용되는 독서법인 SQ3R, 즉 훑어보기(Survey), 질문하기(Question), 읽기(Read), 되새기기(Recite), 다시보기(Review) 등의 방법에 대해 배우고, 이를 활용해 청소년용 영자신문 기사를 읽어본다.

16~20차시에는 인상 깊게 읽은 책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하며 작가의 입장이 되어본다. 책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을 뽑은 뒤, 독자들이 감동을 느끼게 하기 위해 작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토론해 보는 것. 나아가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법칙을 배우고, 이를 활용해 앞부분만 제시된 이야기의 뒷 내용을 자유롭게 구상해본다. 노 교사는 "독자가 아닌 작가의 입장이 되어보면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21~26차시는 책 'The Magic Finger(Roald Dahl 저)'를 함께 읽은 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

교사가 ‘만약 요술손가락이 있다면 어떤 모험을 하고 싶은가’ ‘주인공은 어떻게 요술손가락을 갖게 되었을지 상상해보자’ 등의 공통문항을 제시하면 모둠별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비주얼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 발표한다. 학생들은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깨닫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도 배우게 된다.

친구 위한 ‘책 안내서’ 만들며 성취감 키운다

27~29차시에는 한 학기 동안 배운 영어독서의 중요성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독서와 관련된 명언을 직접 쓰고, 자신이 지은 명언을 적어 연필꽃이와 거울을 만들어본다. 연필꽃이를 만드는 이유는 책상에 올려두고 늘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이고, 거울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 독서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30~34차시에는 영어독서 활동을 통해 쌓은 재능을 다른 친구들과도 나눌 수 있도록 재능 나눔 활동을 한다. 간략한 책 소개와 함께 어려운 단어를 정리해둔 ‘책 안내서’를 만들어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영어책 사이에 끼워두거나, 수준별 추천도서 목록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배부하고, 영어 독서를 독려하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는 식. 노 교사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영어독서봉사단을 조직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친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학생들의 성취감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 이 수업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소개된 자유학기제 활동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학기 활동 운영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다.

노수진 경기 매송중 교사가 말하는 주제선택 활동

영어 읽기·듣기·쓰기 역량 골고루 높일 수 있는 수업!

‘Extensive Reading & Visual Storytelling’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비판적으로 독서하기, 영어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UCC 제작하기, 친구들을 위한 책 안내문 만들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한 노수진 경기 매송중 교사는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언어와 매체를 활용하여 전달하는 의사소통 역량은 물론, 친구들을 위해 책 안내서나 추천도서 목록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쌓는다”고 말했다.

‘Extensive Reading & Visual Storytelling’ 수업을 이끈 노 교사로부터 수업 기획 과정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들었다.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Q 수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본교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은 34차시로 기획됐다. 34차시라는 수업 분량이 무척 방대하기에 교사가 학생들을 가장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수업 주제는 무엇인지, 학교의 여건상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업 주제는 무엇인지부터 깊이 고민했다.

나는 드라마 작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학교는 온라인 영어독서프로그램과 영어교과교실을 운영하고 ‘영어독서 활성화 주간’ ‘영미문학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등 영어독서를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교사와 학교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결합 한다면 좋은 수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Q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비판적 독서를 위한 여러 가지 독서 전략은 물론, UCC 제작에 필요한 스토리보드 작성법, 영상 촬영 기법, 그리고 비주얼 스토리텔링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해당 내용을 교사 혼자서 지도하는 것이 다소 버거울 수 있다. 학생들도 방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소화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고, 학생들 스스로 배운 내용을 적용해볼 수 있도록 개별·모둠 활동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독서 전략 습득 및 비판적 독서’ 수업을 진행할 때는 교사가 독서 전략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은 최소화하고, 이를 활용해 영자신문 기사나 책을 읽어보는 학생 중심 활동에 더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Q 수업의 효과는?

UCC 제작, 영어 명언 쓰기 등 학생 활동 중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길러주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모든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이 수업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1학기 영어 지필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이었던 한 학생은 수업 초반에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있었지만 UCC 제작 중 배우로 참여하면서 눈에 띄게 달라졌다. 녹음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자발적으로 재녹음을 하고, 상영회에서도 효과적인 비주얼 스토리텔링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자유학기 수업은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이므로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야한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학생들이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 주었기에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

▶노수진 경기 매송중 영어교사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 분위기 조성해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업이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발표가 있을 때는 서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격려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책 'The Magic Finger'를 읽고 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학생들은 이 발표를 들으며 어떤 점을 새롭게 알게 됐는지, 특히 어느 부분이 인상적이었는지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전에 학생들에게 동료의 피드백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영어 실력이 다소 낮은 학생일지라도 영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찾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피드백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학생들의 영어 실력 차이를 극복하려면?

영어는 도구일 뿐이다. 날카로운 도끼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그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다소 무딘 도끼를 가지고 있는 학생일지라도 분명히 해낼 수 있는 일이 있다.

따라서 실력이 우수한 학생은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한 뒤 남은 시간에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 또한 주눅 들지 않고 끝까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가진 도구를 정교하고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것도 수업의 역할이지만,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수업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제언

이 수업에서는 개별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모든 학생들에게 일대일로, 그리고 수업시간 중에 제공했다. 수업시간을 활용한 이유는 다른 학생들이 받는 피드백을 들으며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를 깨닫고, 나아가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 장시간 피드백을 듣다 보면 수업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병행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

일례로 '책 도장 만들기' 활동이 있다.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도장을 자신이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에 찍는 것이다. 한 학기 동안 어떤 책을 읽었는지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읽은 책에 자신이 만든 도장을 찍으며 보람과 성취감도 두 배로 느끼게 된다.

UCC 제작을 지도할 때는 영상 제작의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더 많은 시청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방법을 알려주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다. 대다수 학생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과 영상 촬영에 익숙하기 때문. 스스로 훌륭한 스토리텔링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모듈별 토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주는 것도 필요하다.